

현대미술 흐름 이끈 '뉴욕의 거장'들...결작을 만나다

ACC재단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 특별전...7월18일-10월9일 ACC 문화창조원

리처드 세라·재스퍼 존스 등 21명 작품과의 조우
6개 섹션, '뉴욕 화파' 중심 美 현대미술 흐름 조망
2천억원 호가 '수평적 구조' 등 35점...사전에매 50%할인

명확한 형태 없이 색과 선, 움직임 자체로 감정을 전달하는 '추상표현주의'. 강렬한 색채, 역동적인 화면, 출렁이는 마음의 기운이 화폭에 가득 담겨 있다. 당시 유럽의 화풍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 뉴욕의 거장들과 함께 20세기 중반 현대미술을 오히려 느껴볼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진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7월18일부터 10월9일까지 ACC 문화창조원 복합관에서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

크 로스코의 친구들'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뉴욕 현대미술관의 명작 35점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뉴욕의 거장들' 전시는 서양미술사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던 시기, '뉴욕화파' 작가들을 중심으로 탄생한 '추상표현주의'의 등장 배경과 전개 과정을 조명한다. 또한 시대의 흐름을 이끈 거장들의 작품 활동을 돌아보고, 20세기 중반 예술의 중심지가 파리에서 뉴욕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전시에선 추상표현주의 창시자 잭슨 폴록을 비롯해 색면 추상의 대가 마크 로스코, 개념미술 대표 작가 솔 르윗, 미니멀리즘 조각가 리처드 세



솔 르윗작 '웃음'



마크 로스코작 '심자기'

라, 현대 추상 조각의 선구자 프랭크 스텔라, 팝아트의 아버지 제스퍼 존스 등 현대미술 거장 21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출품작들은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만나보기 힘들었던 추상표현주의 초기 작품부터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미니멀리즘 작품까지 현대 미술사의 주요 사조를 망라한다.

특히 2천억 원 이상의 가치로 평가 받는 잭슨 폴록의 작품 '수평적 구조'가 광주 시민들을 찾는다. 이밖에도 미술사적 연구 가치가 높은 마크 로스코의 초기 작품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전시는 총 6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추상표현주의'에선 1940년대 뉴욕 예술가들이 미국 문화를 국제 무대로 끌어올리며 뉴욕을 아방가르드의 메카로 만든 시기를 조명한다. 추상화로의 이행을 통해 관습과 사회적 제

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했던 예술가들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섹션이다.

2부 '꿈을 넘어선 도전'은 초현실주의의 꿈과 무의식 영역에서 출발해 재현에 집착하지 않는 새로운 표현을 탐구한 시대를 다룬다. 전쟁의 참상을 겪으며 발전한 실용주의 예술과 잭슨 폴록의 드리핑 기법으로 대표되는 완전히 새로운 표현 방식을 만날 수 있다.

1960년대 뉴욕의 예술적 분위기와 추상적 감성을 구현한 작품 선보이는 3부 '어반 캔버스' 섹션도 기대를 모은다. 4부 '추상과 색면회화'에선 바넷 뉴먼을 비롯한 작가들이 색채의 원초적 관능성과 기하학적 형태가 돋보이는 작품을 소개하며, 5부에선 리처드 세라, 제스퍼 존스 등의 미니멀리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6부 '액션페인팅 다큐멘터리'에선 잭슨 폴록의 혁신적인 작업 방식을 고스란히 담은 영상을 상영한다.

한편 이번 전시 관람권은 성인 1만3천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1만원이다. 오는 30일까지 사전 구매 시,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명진기자



미리엄 샤피로작 '파라드'

'빛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풍경'

최지목 개인전, 29일까지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

눈을 감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잔상의 이미지. 붙잡을 수 없는 그 풍경이 전시장에 펼쳐진다. 최지목 작가의 개인전 '눈먼 풍경-빛이 나를 지나 너를 남긴다'가 오는 29일까지 포도나무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전시는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작업해온 작가 최지목과 우토로 아트 페스티벌 2025 예술감독 유재현의 협력 기획으로 마련됐다. 두 사람은 빛과 감각, 신체의 경험을 중심에 놓고 회화의 전통적 개념을 확장하는 실험에 함께했다.

전시 공간은 외부 빛을 완전히 차단한 어두운 방으로 꾸며졌다. 이 안에 설치된 라이트박

스 작품 'Das Bild'는 색과 밝기를 달리하며 다양한 빛을 뿜어낸다. 관람자가 이를 응시하면, 시야에 일시적으로 잔상이 남는다. 작가는 이 잔상이야말로 관객 각자가 창조하는 고유한 이미지이며, 그것이 곧 회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빛의 세기, 색의 온도, 시선의 이동 그리고 기억이나 감정 같은 요소가 결합해 잔상의 형상을 만들어낸다. 이는 작가가 그려놓은 그림이 아니라 관객의 감각 속에서 일회적으로 만들어지는 풍경이다.

라이트박스 외에도 전시에서는 조명 설치와



최지목 작가와 그의 라이트박스 오브제 작품

추경적인 리듬 속에서 이뤄지는 감각 퍼포먼스 기록이 함께 소개된다. 플래시 조명 아래 관람자의 눈에 새겨지는 빛의 흔적은 추상화의 배경이 되고, 실루엣과 움직임은 시각적 구성이 된다. /최명진기자

노년의 삶에 건네는 따스한 위로

극단 Y '늦은 행복'...26-28일 미로극장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삶의 본질을 성찰하게 하는 연극 한 편이 무대에 오른다. 극단 Y의 연극 '늦은 행복'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동구 예술의거리 내 미로극장 2관(구 공영예술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2025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이 작품은 노년의 삶과 가족의 의미를 조명한다. 지난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일연극제' 초청작으로도 호평받았다.

작품은 차매에 걸려 남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내와 암 투병 중인 남편, 이들 노부부의 하루하루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매일 공원에서 /최명진기자



처음 만난 연인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젊은 시절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한 회한과 갈등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최명진기자

엄마 마음으로 돌보아 드립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양육공백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서비스 유형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200%이하) 마형(20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 ~ 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우리 아이 양육 파트너 '아이돌보미 모집'

신청방법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회원가입 → 모집공고확인 → 지원신청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 대표번호: 1577-2514 (전국 서비스 제공기간으로 자동 연결) | 홈페이지: idolbom.go.kr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보관 장소가 줄어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